

‘연비·가격’ 경쟁 SUV 중 1위...가성비 슈퍼잡

(가솔린 모델)

연비 11.7km/l...동급 SUV 중 최고 2435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 가격 다양한 첨단 사양·정속성도 엄지 척



2019년형 QM6 GDe(가솔린)는 중형 SUV 특유의 공간 활용성과 가솔린 SUV 특유의 정속성, 소형 SUV급 연료 효율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또한 디젤모델에 비해 약 290만원 저렴한 가격 경쟁력으로 SUV 시장에 ‘가성비’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진제공 | 르노삼성자동차

‘가성비’는 유통가를 넘어 자동차 업계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핫 키워드다. 경제 불황이 지속되며 소비자들의 소비 심리는 지속적으로 위축되고 있고, 이러한 불황을 뚫기 위해 완성차 업체들은 더욱 가성비 좋은 차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다. 가성비를 따질 때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은 경제성이다. 르노삼성자동차 2019년형 QM6 GDe(가솔린)는 2435만원부터 시작하는 합리적인 가격으로 SUV 시장에 가성비 열풍을 불러일으킨 대표적인 차다. 중형 SUV 특유의 공간 활용성, 가솔린 특유의 정속성, 소형 SUV급 연료 효율에 디젤모델 대비 약 290만원 저렴한 가격을 자랑한다. 개소세 인하로 기본 모델인 SE 트림 기준으로 45만원의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압도적인 경제성과 정속성

QM6 GDe는 검증받은 2.0 GDe 엔진과 일본 자트로코(JATCO)의 최신 엑스트로닉 무단변속기를 탑재했다. 특히 무단변속기는 변속 응답속도가 빨라 연비 효율을 높이는 데 탁월하다. 가속할 때 더 많은 힘을 바퀴에 전달하여 엔진 파워 손실도 감소시키기 때문이다. 이 두 조합으로 공인 연비가 리터 당 복합 11.7km(17, 18인치 휠 기준)에 달해 동급 최강 연비를 자랑한다.

싼타페, 쏘렌토 등 동급 가솔린 SUV와 비교해도 연비에서는 월등히 앞선다. 1년에 1만5000km를 주행하면 동급의 가솔린 SUV보다 한 해 약 50만~60만원(가솔린 1480원 기준)의 주유비를 절약할 수 있다.

미디어 시승행사는 물론 실제 오너들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도 QM6 GDe의 고속도로 주행 실연비가 17~18km/L에 달한다는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실제 오너들의 연비 기록 인증을 통해 뛰어난 경제성을 인정받은 셈이다.

성능과 정속성도 만족스럽다. 2.0 가솔린 엔진과 무단 변속기의 조합은 정속성 면에서 뛰어난 수박에 없다. 또한 변속 시 발생하는 충격이 거의 없고, 엔진 또한 잔진동이 최소화되어 부드럽고 편안한 승차감을 제공한다.

또한 전 트림에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앞 유리)를 기본 적용했으며, 차체 곳곳 소음이 유입될 수 있는 부위에 다양한 흡·차음

재를 보강한 덕분에 수준 높은 정속성과 부드러운 주행감을 만끽할 수 있다.

●첨단 드라이빙 기능과 세련된 디자인 조화

QM6 GDe에는 다양한 ADAS 기술이 탑재되어 있다. 트림에 따라 긴급제동 시스템(AEB), 전방충돌 경보시스템(FCW), 차선이탈 경보시스템(LDW), 오토패킹 하이빔(AHL), 운전자 피로도 경보 시스템(UTA, Unstable Trajectory Alert) 등 첨단 드라이빙 안전시스템(ADAS)을 적용해 안전성을 높였다. 장거리 주행이라도 가족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첨단 드라이빙 기능이 있다면 더욱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다.

이렇듯 경제성과 성능 면에서 부족함 없

는 스펙을 갖추고 있으면서 디자인도 그에 못지않은 도시적인 이미지와 당당한 카리스마를 뽐낸다. 티프하고 거칠기보다는 부드럽고 세련된 세단의 느낌이 강한데 이는 안정적인 차체 비율이 SUV가 가진 역동적이고 남성적인 느낌을 살리면서도 섬세하고 세련된 이미지를 완성했기 때문이다.

고광택 크롬 소재의 실루엣과 헤드램프부터 옆면의 펜더와 사이드 가니시, 테일 파이프까지 이어지는 라인은 안정적이고 수평적이다. 또한 19인치 알로이 휠과 넓은 휠 아치, 짧은 프런트 오버행과 길게 뻗은 후드 그리고 경쟁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높이와 긴 휠베이스 등이 역동적인 느낌을 자아낸다.

sereno@donga.com

폭스바겐 프리미엄 세단 ‘아테온’ 국내 상륙

동급 최대 공간·첨단 안전사양 적용

폭스바겐코리아가 새로운 디자인과 혁신적인 기술을 담은 프리미엄 세단 아테온을 출시했다.

폭스바겐 아테온은 새로운 MQB 플랫폼을 적용한 덕분에 동급 최고 수준인 2840mm의 휠베이스를 확보해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자랑한다. 전방충돌경고장치 프론트 어시스트 및 긴급제동시스템, 보행자 모니

터링 시스템, 액티브 보닛, 트래픽 잼 어시스트, 사이드 어시스트 플러스 등의 첨단 안전 기술도 기본으로 적용됐다.

아테온은 전륜 구동의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Elegance Premium),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Elegance Prestige)의 2가지 라인업을 동시에 선보이며, 2개 트림에는 공통적으로 2.0 TDI 엔진과 7단 D

SG가 적용됐다. 1968cc TDI 엔진은 최고 출력 190마력(3500~4000rpm)과 최대 토크 40.8kg.m(1900~3300rpm)를 갖췄다. 제로백은 7.7초, 공인 연비는 15km/l(복합), 13.6km/l(도심), 17.2km/l(고속)다. 가격은 2.0 TDI 엘레강스 프리미엄 5216만 8000원, 2.0 TDI 엘레강스 프레스티지 5711만 1000원.

원성열 기자



폭스바겐 프리미엄 세단 ‘아테온’

두바이 품은 터키 10일
A380 구간 비즈니스 왕복·ALL 특급호텔
두바이 관광·오리엔트 Express 레스토랑 정찬
2019 (1/27), (2/10, 17, 24) (3/3)
하안풍차투어 문의: 02-777-6566



볼보 S60, 국내 첫 세자릿수 판매

볼보자동차가 국내 진출 15년만인 올해 처음으로 세 자릿수 판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에 의하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볼보자동차의 누적판매량은 108대로 집계됐다. 차종별로는 고스트가 63대로 전체 볼보자동차의 판매 성장을 견인했으며, 레이스 26대, 던 11대, 팬텀 8대 순이다. 볼보자동차는 청담 전시장에 이어 지난 2016년 부산 달리십 확충, 2017년 영종도 BMW 드라이빙센터 내 첫 브랜드 스튜디오를 개설 등 한국 내 입지 강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원성열 기자

100% 국내생산제품 / 5년보장 / A/S

2018년형 **잔피엘** 온풍 전기난로 12주년 기념 **50% 빅세일!!**

각300대 한정 선착순 판매

온풍기능

<p>나노탄소 난로 JP-280</p> <p>할인가 : 249,000원</p> <p>128,000원</p> <p>● 제품규격 : 사이즈 : 330mm x 575mm ● 난방면적 : 39.6㎡ ● 소비전력 : 2kw (2) / 1kw (1)</p>	<p>온풍 원적외선 난로 JP-350</p> <p>할인가 : 253,000원</p> <p>158,000원</p> <p>● 제품규격 : 사이즈 : 330mm x 660mm ● 난방면적 : 49.5㎡ ● 소비전력 : 3kw (2) / 1.5kw (1)</p>	<p>온풍 나노탄소 난로 JP-580</p> <p>할인가 : 343,000원</p> <p>248,000원</p> <p>● 제품규격 : 사이즈 : 330mm x 575mm ● 난방면적 : 66.0㎡ ● 소비전력 : 3kw (2) / 1.5kw (1)</p>
--	---	---

전국주문전화 / 1644-7636

입금계좌: 농협 302-8874-7332-11 구현채